

선교사일 때 잠시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뵙고 다시 헤어질 때 어머니는 항상 집 밖에서 떠나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여 그 버스를 타고 어머니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 밖에서 쭉그리고 앉아서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바라봄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내내 저를 향해 있었을 것이란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눈길은 평생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미국에 보내 놓고서도 마음의 눈을 그를 향해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도시에 보내 놓고서도 일평생 자녀를 걱정하며, 마음을 씁니다.

**5절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는 표현이 바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 예배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3주째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과 열망이 아름다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헤아려 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 1. 지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관찰하다"**의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해서 바라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지켜주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을 강조한 것은 노동하는 6일 동안 매일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어서 이 찬양을 하였을까요? 어려움이 없거나, 그의 삶에 불행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시편의 저자에게도 이런 일들은 분명 일어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 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아프리카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죽는데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일수도 있습니다. 자연적 기후와 환경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 일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재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불의한 사고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몰려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2. 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우심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에게 많은 물질과 경제적 축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지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방안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몰려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 산과 골짜기를 누가 지으셨는가?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의 창조자와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생각 납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깨고 외칩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 소리를 높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바라보고, 그 영향력을 의식하기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멍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989년 강도 8.2의 지진이 아르메니아를 강타했습니다. 단 4분 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르망의 아버지는 아들의 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실 쪽에서 36시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지만 쉬지 않고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하나씩 걷어내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아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아르망은 “아빠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빠가 구하러 올 거라고 말했어요. 여기 친구들 14명이 있어요.”라고 아르망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은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녀인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시죠? **4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리로다**” 이 말은 확신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다치고 아파할 때에 옆에서 우리를 간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조용히 앉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건강과 힘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라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 3.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사과나무 아래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오래된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과나무 아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과나무가 아들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휘어져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의 아들은 사과나무 아래의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뛰어가 두 팔을 벌리고 아들에게 “나에게 뛰어 내려라 내가 받을게.”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뛰어 내렸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오래된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언제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고 달려와 두 팔을 벌리고 우릴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배자의 길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영원한 길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하러 교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실 뿐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교회 모든 성도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인생의 삶이 아닌 영원토록 지키시기 위해 엄청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를 아버지처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었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방황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나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충분한 하나님을 자주 놓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 결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여성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한 달 동안 생활비도 도착하지 않아 매일 보리죽과 강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나 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자 심했던 질병이 사라져 건강이 회복됐고 생활비도 다시 도착, 식량을 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후 안식년으로 귀국한 이 선교사는 교회에서 당시 힘들었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친절해 보이는 한 의사가 찾아와 그 질병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니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를 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그런 소화 장애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기를 돌봐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적절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되셔서 나를,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이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